

2020년 6월 1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연준의 회사채 매입 발표후 강세 확대 S&P “미 은행 1/3 신용등급 위험” → 연준 “회사채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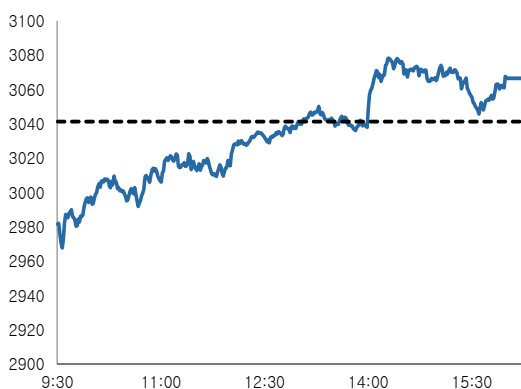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시장을 살린 연준

미 증시는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우려로 급락 출발. 그러나 지표 호전과 연준위원들의 발언,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결국 상승 전환 성공. 특히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폭 확대. 한편, 언택트 관련주 및 경기 민감주 중 구조조정등을 통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군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등 종목 차별화가 특징(다우 +0.62%, 나스닥 +1.43%, S&P500 +0.83%, 러셀 2000 +2.30%)

이른 경제 재개로 플로리다, 애리조나를 비롯한 20 여개 주에서 코로나 재 확산. 이는 소비 둔화 우려를 자극하며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이 결과 S&P500 종목들 중 9 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급락 출발. 더불어 신용평가사인 S&P 가 코로나로 인해 미국 은행의 1/3 이 신용등급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발표했고, FDA 가 클로로퀸에 대해 효과가 없다며 긴급 사용을 취소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도 영향. 특히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12 일(금)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보고서 내용에서 기업과 가계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고,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을 주장한 점도 부정적.

그러나 모더나(+7.37%)가 이스라엘이 백신 물질을 구매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다고 발표하자 백신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며 주식시장은 낙폭을 줄임. 여기에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가 수익률 곡선 제어 기대를 높이는 발언을 하고,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코로나 재 확산시 연준과 정부는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시장에 안도감을 주며 상승 전환에 성공. 더불어 장 후반 연준이 개별 기업 채권을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폭 확대. 이는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기업 신용 리스크 완화 가능성을 높인데 따른 것으로 추정. 연준 발표로 3 월 22 일 기준 신용등급이 투자 등급이었으나 현재는 정크 본드로 하락했던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 특히 3% 넘게 급락하던 금융주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등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030.82	-4.76	홍콩항셱	23,776.95	-2.16
KOSDAQ		693.15	-7.09	영국	6,064.70	-0.66
DOW		25,763.16	+0.62	독일	11,911.35	-0.32
NASDAQ		9,726.02	+1.43	프랑스	4,815.72	-0.49
S&P 500		3,066.59	+0.83	스페인	7,259.30	-0.46
상하이종합		2,890.03	-1.02	그리스	647.98	+0.18
일본		21,530.95	-3.47	이탈리아	18,969.29	+0.4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언택트 경기 민감주 선별적 강세

JP모건(+1.38%), BOA(+1.49%), 웰스파고(+0.86%), 씨티그룹(+1.40%)은 물론 지방은행인 BOK파이낸셜(+3.09%), 키코프(+1.13%) 등은 S&P가 코로나 여파로 은행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급락했다. 그러나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발표한 이후 지방은행 중심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 후 그 폭을 확대했다. 클라우드 기반한 소프트웨어 회사인 도쿠사인(+8.03%)은 나스닥 100지수에 유나이티드 항공(-1.66%) 대신 포함 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했다.

모더나(+7.37%)는 이스라엘과 백신 물질 판매 논의를 했다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소식이 전해지자 줌비디오(+8.88%), EA(+3.73%)가 급등 했으며, 넷플릭스(+1.78%), 아마존(+1.09%) 등 언택트 관련 종목도 상승했다. 다만, 넷플릭스, 아마존 등은 장중 약세를 보이는 등 모든 종목이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로스스토어(-1.24%), L브랜드(-0.83%) 등 소매판매업종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비 둔화 우려 속 하락했다. 다만, 캐터필라(+0.37%), TJX(+0.27%) 등 일부 경기 민감주의 경우 강세를 보이는 등 차별화가 특징이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91%	대형 가치주 ETF(IVE)	+0.84%
에너지섹터 ETF(OIH)	+0.41%	중형 가치주 ETF(IWS)	+1.25%
소매업체 ETF(XRT)	+1.31%	소형 가치주 ETF(IWN)	+1.66%
금융섹터 ETF(XLF)	+1.38%	대형 성장주 ETF(VUG)	+1.08%
기술섹터 ETF(XLK)	+0.97%	중형 성장주 ETF(IWP)	+1.6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21%	소형 성장주 ETF(IWO)	+2.91%
인터넷업체 ETF(FDN)	+1.64%	배당주 ETF(DVY)	+0.84%
리츠업체 ETF(XLRE)	+1.2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9%
주택건설업체 ETF(XHB)	+3.2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1%
바이오섹터 ETF(IBB)	+1.99%	미국 국채 ETF(IEF)	-0.08%
헬스케어 ETF(XLV)	+0.23%	하이일드 ETF(JNK)	+0.74%
곡물 ETF(DBA)	-0.40%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1.30%	Long/short ETF(BTAL)	-0.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99.54	+0.09%	-14.68%	+10.00%
소재	348.24	+0.93%	-7.23%	+8.78%
산업재	584.88	+0.93%	-8.98%	+16.57%
경기소비재	1,025.39	+0.87%	-3.80%	+8.82%
필수소비재	598.32	+1.06%	-3.99%	+2.01%
헬스케어	1,136.59	+0.18%	-5.96%	-2.66%
금융	399.56	+1.38%	-9.66%	+14.62%
IT	1,760.27	+0.87%	-1.62%	+7.29%
커뮤니케이션	181.82	+1.00%	-2.92%	+5.62%
유틸리티	297.85	+0.63%	-6.14%	+7.40%
부동산	222.04	+1.01%	-5.25%	+15.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펀더멘탈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3.44%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83%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8.2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재 확산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했다. 이는 향후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이익 악화 가능성을 자극해 외국인의 대규모 매물을 야기시키는 등 수급적인 부담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러한 요인으로 미 증시 또한 급락 출발했다. 그렇지만, 지역 연은 총재들이 적극적인 연준과 정부의 대응을 시사하고, 연준 또한 회사채 매입을 발표하자 미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결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 기대는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오늘 저녁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월 의장은 미국 기업들의 파산 위험을 주장해 왔고, 연준이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안에도 가계와 기업들의 파산 위험 언급한 점, S&P 의 “미국 은행 중 1/3 이 신용등급에 취약하다” 라는 주장 등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전일 하락을 뒤로하고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파월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며 상승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 증시가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연준의 발표로 한때 상승했으나 여전히 매물 출회되며 재차 하락하는 등 펀더멘탈에 주목한 점을 감안 한국 증시에서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종목 위주로 반등이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수 개선 Vs. 중국 실물 지표 예상 하회

6 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전월(-48.5)이나 예상(-30.0)을 크게 상회한 -0.2 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42.4→-0.6), 고용지수(-6.1→-3.5), 전망지수(29.1→56.5) 등 모든 항목이 개선 되었다. 특히 전망 지수의 급등으로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였다.

5 월 중국 산업생산은 전월(yoy +3.9%) 보다 개선된 전년 대비 +4.4%로 발표되었으나 예상(yoy +5.0%)는 하회 했다. 소매판매 또한 전년 대비 2.8% 감소에 그쳐 전월(yoy -7.5%) 발표를 상회했으나 예상(yoy -2.3%)을 하회했다. 고정자산 투자 또한 전년 대비 6.3% 감소에 그쳐 지난달 발표(yoy -10.3%) 보다 개선되었으나 이 또한 예상(yoy -6.0%)을 하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연준 발표 후 국제유가, 국채금리 상승 전환

국제유가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 하락 출발 했다. 그러나 연준위원들이 일드캡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과 연준의 회사채 매입 발표 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간이 지나며 상승폭이 더욱 확대 되었다.

달러화는 지표 호전에 기반 여타 환율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연준의 회사채 매입 발표 후 약세로 전환 했다. 특히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은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부추기며 달러 수요 감소를 야기 시켰다는 점에서 약세의 요인이었다.

국채금리는 지표 호전 불구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하락 출발 했다. 그러나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발표하자 결국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한편, 카플란 달러스 연은 총재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된 가운데 수익률 곡선 제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라고 주장했으며, 데일리 샌프란 시스코 연은 총재는 “코로나 재 확산이 발생하면 연준과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해 위험 자산 선호심리를 더욱 확산 시켰다.

금은 경기 둔화 우려 불구 지표 호전 등을 기반으로 한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되자 소폭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7.12	+2.37	-2.80	Dollar Index	96.702	-0.63	+0.09
브렌트유	39.72	+2.56	-2.65	EUR/USD	1.132	+0.57	+0.23
금	1,727.20	-0.58	+1.30	USD/JPY	107.37	-0.01	-0.98
은	17,399	-0.47	-2.76	GBP/USD	1.2600	+0.48	-0.97
알루미늄	1,577.00	-0.50	-1.74	USD/CHF	0.949	-0.36	-0.90
전기동	5,707.50	-1.33	+0.14	AUD/USD	0.6919	+0.77	-1.45
아연	1,982.50	+0.28	-2.91	USD/CAD	1.3571	-0.13	+1.41
옥수수	333.75	-0.22	-1.33	USD/BRL	5.1468	+1.91	+3.75
밀	509.75	+0.39	-1.45	USD/CNH	7.0732	-0.06	+0.24
대두	876.00	-0.43	-0.23	USD/KRW	1216.00	+1.01	+0.93
커피	95.90	-1.13	-4.77	USD/KRW NDF1M	1208.22	+0.43	+1.0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96.702	-0.63	+0.09	스페인	0.557	-3.30	+1.20
한국	1.132	+0.57	+0.23	포르투갈	0.540	-2.50	+2.20
일본	107.37	-0.01	-0.98	그리스	1.195	-7.20	-20.40
독일	1,2600	+0.48	-0.97	이탈리아	1,456	+1.10	+5.40